

큰빛은혜교회 가정예배지

2025. 9. 24.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양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창세기 25장 27~34절

다 같이

27.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28.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29. 야곱이 죽을 썬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30.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31.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2.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 야곱이 떡과 팔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던라

말씀 나눔 팔죽 한 그릇에 담긴 복과 영원 인 도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25장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팔죽 한 그릇에 얹힌 형제의 갈등을 보여주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삶과 믿음에 대한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가정과 개인의 삶에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육신의 만족을 쫓던 에서

에서는 날렵한 사냥꾼으로 들판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성품으로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이 두 형제는 각기 다른 삶의 방식과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매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극심한 배고픔에 지쳐 있었고, 그는 눈앞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팔죽을 쑤고 있던 야곱에게 팔죽 한 그릇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에서에게는 팔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팔죽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문 29~30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는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나 약속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의 허기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이 영적인 복보다 더 크게 다가온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죽 한 그릇에 팔아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본문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우리 또한 에서와 같은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눈앞의 유혹, 당장의 쾌락,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영원한 가치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팔죽은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영적인 허기로 이끌 뿐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의 순간이 삶 속에 다가오면 에서를 떠올리며 지혜롭게 대처하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복을 사모했던 야곱

본문의 야곱은 에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에서의 배고픔을 보고 팔죽을 주었지만,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야곱은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요구합니다.

본문 31~32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의 이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교활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장자권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장자의 명분은 단순한 상속권을 넘어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게 되는 복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언약과 복을 이어받는 통로였고, 눈앞의 팔죽보다 더 크게 볼수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몇 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팔죽의 수고로움이 장자의 명분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의 순위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팔죽 한 그릇과 영원한 가치

본문 34절 “야곱이 떡과 팔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구절은 에서의 비극적인 선택을 요약해 줍니다. 그는 배고픔을 해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경솔하게, 하찮게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팔죽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경솔히 여기고 있습니까? 예배를, 기도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의 팔죽에 현혹되어 영원한 축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매일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에서처럼 당장의 만족을 좇을 것인지, 아니면 야곱처럼 영원한 가치를 사모할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싼 것은 영원한 가치를 놓치는 대가로 얻는 값싼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팔죽과 같은 유혹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참된 장자의 복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 장자의 명분을 되찾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1.에서는 눈앞의 배고픔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영원한 복을 놓치게 만드는 순간의 만족이나 유혹은 무엇인가요?
2. 나는 혹시 예배, 기도, 말씀과 같은 신앙의 본질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다시 소중히 붙들 수 있도록 다짐하며,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나눠주세요.

중보기도

베이 지역과 미국을 위해

1. 미국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진리를 선포하도록
2. 이민자들과 소외된 이웃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3. 미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4. 베이 지역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5. 베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물질만능주의와 동성애가 떠나가도록

마무리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순간의 만족보다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서처럼 눈앞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급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복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